

장흥군, 수출 500억 달성해 ‘잘사는 농촌’ 만든다

농·수·축·임산업 경쟁력 강화
판로확대 수출 지원책 주력
2023년 수출 293억원 기록
농특산물 수출 전담조직 성과

장흥군이 지난해 수출실적 293억원을 기록했다. 군은 이에 안주하지 않고 2027년까지 500억원 달성을 목표로 해외시장 공략에 박차를 가한다.

28일 장흥군에 따르면 민선8기 출범 이후 지역 기반산업인 농·수·축·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투자가 주된 소득 향상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판로확대 및 적극적인 수출 지원책을 추진하고 있다.

농특산물 수출 전담조직을 구성해 해외시장 개척에 나선 결과 쌀 등 지역 수요 수출품목들이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력을 인정 받으면서 가시적인 성과도 나타나고 있다.

장흥군은 지난해 1월 민선8기 첫 조직 개편을 통해 농산과를 농산유통과로 개편했다. 농산유통과에는 수출업무 총괄하는 ‘수출유통팀’을 새로 구성했다.

체계적인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조직적 기반을 마련한 것.

수출지원 예산은 이전대비 약 340% 확대했다. 확보한 예산은 지역에 맞는 수출 지원 정책을 발굴하고, 수출산업을 육성하는 데 투자할 방침이다.

전담조직 출범 후 장흥군이 가장 먼저 주목한 분야는 해외시장 개척이다. 행정 이 앞서 해외시장의 길을 열고 지역 기업이 확보된 판로를 통해 안정적인 수출을 이어간다는 전략이다.

군은 해외시장 판매장 운영사 수출상담회(2022년 12월), 해외바이어 초청 수출상담회(2023년 8월)를 통해 해외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장흥군 농수특산물 시식회 및 판촉행사를 수시로 열어 기업과 해외시장 간의 접점을 만들고 있다.

이같은 노력은 곧 성과로 이어졌다. 베트남 달랏시 수출협약(2023년 5월·5년간 100만달러), 해외바이어 수출협약(2023년 8월·5개국 200만달러), 중국 웨이하이 보세구 수출협약(2024년 4월·50만달러), 미국 키트레이팅 수출협약

(2024년 5월·50만달러) 등 다수의 수출협약에 성공했다.

지난해 5월에는 베트남 달랏시에 지역 최초로 국의 특산물 판매센터를 개관했다. 무산김, 표고버섯 등 2억8000만원 규모의 농특산물을 수출하는 성과를 올렸다. 이러한 성과를 기반으로 장흥군은 지난해 전라남도에서 주관한 ‘제1회 수출 경진대회’에서 우수시군에 선정됐다.

올해 하반기에는 중국 청도에 장흥군 특산물 판매센터 개관을 앞두고 있다. 미국 메릴랜드주에는 장흥군 특산물 물류센터를 조성해 해외시장에서 장흥군 농특산물의 입지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이밖에 쌀 부가가치 향상을 위해 유치면 등을 중심으로 친환경 농업을 적극 확대하고 있다. 쌀 유통 및 가공 시설을 확충하기 위해 농산물 산지유통센터(APC) 스마트화, 벼 건조저장시설(RPC) 현대화 등을 추진한다. 표고버섯에 대해서는 국비확보를 통해 임산물 산지 종합유통센터를 현대화하여 수출 품질 향상에 노력할 계획이다.

현재 장흥군의 총 수출규모는 2021년 205억원, 2022년 239억원, 2023년 293억원으로 지속적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한국무역협회의 3월 수출실적 발표자료에 따르면 장흥군의 농특산물 수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65.8% 증가해 전남도 내 시군 중 8위를 기록했다.

증가세에 발맞춰 장흥군은 2027년까지 3개년 범위로 수출산업 발전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이번 계획은 전남권 시군 중 최초로 추진하는 것으로 장흥 지역에 맞는 수출 전략품목 발굴 및 수출기업 육성과 수출전망 분석을 통해 수출정책의 로드맵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계획이 완료되면 이에 맞춰 예산확보, 해외시장 개척, 기업 경쟁력 강화 지원 등 필요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나갈 방침이다.

김성 장흥군수는 “수출분야에 대한 체계적인 업무 추진으로 ‘수출로 잘사는 농어촌 지역 장흥’을 만들어가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전환 기자



도배·장판 교체 봉사활동 펼쳐 순천새시도봉사클럽

순천시 새시도봉사클럽(회장 이정선)이 지난 25일 월등면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가정에게 도배, 장판 교체 봉사활동을 펼쳤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수해가구는 노모와 함께 거주하고 있는 시각장애인 세대로 도배, 장판 상태가 열악해 주거환경 개선이 시급한 상태였다.

이날 봉사활동에 참여한 회원들은 가구를 옮겨 집을 깨끗이 청소하고 도배, 장판을 교체하여 쾌적한 보금자리를 선물했다.

순천=배서준 기자

군민·관광객 대상 문화행사 보성군, 6~11월

보성군은 지역 간 문화격차 해소를 위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추진한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 공모사업에 선정됐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공모사업 선정으로 국비 7000만 원을 확보해 오는 6월부터 11월까지 군민과 관광객 대상 문화행사를 개최한다.

‘2024 문화가 있는 날 구석구석 문화배달’은 매달 문화가 있는 날(마지막 주 수요일) 주간 토요일에 특색 있는 지역의 문화정거장과 보성 판소리 성지에서 문화가 있는 날 상설 락(樂)! 총 2개의 문화행사로 열린다.

특색 있는 문화정거장은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까지 ‘공연’, ‘추억의 교복 대여’, ‘DJ뮤직박스’ 등의 프로그램을 구성해 청년층에게는 복고 감성을, 중장년층에게는 추억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한다.

문화가 있는 날 토요일상설 락(樂)!은 오후 2시40분부터 3시20분까지 전통 예술 공연과 판소리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의 아름다움을 선사할 예정이다.

조진용 기자

지역민 마음건강 회복 프로그램 장흥군 정남진 편백숲서

장흥군은 지난 21일부터 23일까지 3일간 지역민의 마음건강 회복지원을 위한 힐링프로그램 ‘마음 비움과 채움’을 운영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장흥군정신건강복지센터가 심리·정서적 불안을 느끼는 군민들을 위해 마련한 마음치유 힐링프로그램이다.

정남진 편백숲 우드랜드에서 총3회에 걸쳐 진행됐으며 임산부 및 양육가정, 민원응대 공무원, 지역민 48명이 참여했다.

프로그램은 산림치유사와 함께 피톤치드가 가득한 편백숲 톱밥길 맨발걷기, 해먹 쉼, 마음사랑 도장만들기 등 체험활동과 마음건강교육으로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일상의 스트레스와 불안을 비워내고 자가돌봄의 시간을 가졌다.

장흥=김전환 기자

노후 골목길 숲 분위기 벽화 설치 순천시 향동, 보행자 안전성 확보

순천시 향동 문화의 거리 인근 노후 골목길이 최근 벽화와 다양한 오브제를 활용하여 이색적인 숲 분위기를 내는 ‘보랏빛 골목갤러리’로 새단장됐다.

28일 순천시에 따르면 약 100m 길이의 보랏빛 골목갤러리는 보라색 톤의 나무 실루엣에 새·나비·잠자리·달팽이·두꺼비·도마뱀 등 다양한 생물들을 오브제로 입체감 있게 표현하여 이색적인 숲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다.

아름다운 옥천, 향교, 마을 전경 사진을 전사한 타일 작품과 보랏빛 골목길을 조화롭게 비추는 경관 조명으로 갤러리 분위기를 연출하는 동시에 야간에 보행자 안전성도 확보했다.

이번 골목길 정비사업 과정에서 돌보는 점은 모든 사업 과정에 주민이 참여했다는 것.

사업 제안부터 장소 선정, 디자인 협의 등 전 과정에 걸쳐 주민들이 개진한 의견을 반영했다. 이를 계기로 주민들은 자발적으로 마을을 가꾸는 사례를 만들었다.

순천=배서준 기자

고2 맞춤형 1:1 진학 컨설팅 여수시 행복교육지원센터

여수시가 지난 25일 행복교육지원센터에서 관내 고등학교 2학년을 대상으로 개최한 ‘개인 맞춤 1:1 진학 컨설팅’이 큰 관심과 호응 속에 종료됐다.

컨설팅은 총 120여명이 참여해 학생과 학부모에게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입시 정보를 제공하고자 개인별 1대1 맞춤형 상담으로 진행됐다.

행사에 참여한 한 여수고 2학년 A학생은 “진절할 컨설팅으로 마음의 위안과 용기를 얻었고 앞으로의 내가 나아가야 할 방향성과 해야 할 공부에 대한 강한 동기부여를 받았다”며 “친구들에게도 여수시의 컨설팅 프로그램을 강력 추천하고 싶다”고 밝혔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여수시행복교육지원센터(061-659-5216)로 문의하면 된다.

여수=이경기 기자



순천시 향동의 노후 골목길에 이색적 숲 분위기를 연출하는 벽화가 설치 됐다.

순천시 제공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팔상도 국보 지정

순천시는 국가유산청이 지난 27일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 (사진)를 국보로 지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지난 2003년 보물로 지정된 지 20여년 만에 국보로 승격되는 것. 이번 국보 지정은 지난 17일 국가유산청 출범 이래 첫 사례이다.

순천 송광사 영산회상도 및 팔상도는 송광사 영산전에 봉안하기 위해 일괄로 제작한 불화로, 영산회상도 1폭과 팔상도 8폭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산회상도는 석가모니가 영취산에서 설법하는 모습을 묘사한 불화이고 팔상도는 석가모니의 생애에서 역사적인 사



건을 8개의 주제로 표현한 불화이다.

현재 송광사성보박물관에 보관 중으로

화기(그림의 제작과 관련된 기록)를 통해 1725년(조선 영조 1년)이라는 제작 연대와 의겸(義謙) 등 제작 화승을 명확히 알 수 있다.

한 전각에 영산회상도와 팔상도를 일괄로 일시에 조성해 봉안한 가장 이른 시기의 작품으로 확인되며, 팔상도만이 아니라 영산회상도까지 ‘석씨원류화사적’의 도상을 활용해 하나의 개념 속에 제작된 일괄 불화로서 완전함을 갖추고 있다.

조선 후기 영산회상도의 다양성과 팔상도의 새로운 전형을 제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순천=배서준 기자

고흥군, 몽골 최대 여행사와 업무 협약

고흥군은 몽골 최대 여행사 ㈜렛츠트레블과 몽골 고흥 관광객 유치를 위한 맞춤형 관광 및 지역 인프라 콘텐츠 연계 활용을 위해 지난 27일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주요 내용으로는 △드론산업 견학 등 우주항공산업을 활용한 관광상품 개발 △스마트팜 혁신밸리를 활용한 선진 농업관광 △고흥의 자연경관과 고흥 음식을 관광 상품화하고 무안 공항을 활용한

고흥 경유 관광 상품을 개발해 몽골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이다.

㈜렛츠트레블은 서울, 도쿄 등 6개 도시를 보유한 관광회사로 연간 10만 명의 몽골 관광객을 해외에 보내고 있으며 해외 관광객을 몽골에 유치하기 위해 대형 관광지조트 2개를 운영하는 몽골 최대 여행사이다.

암갈란바트 ㈜렛츠트레블 대표는 “무안공항에 항공편을 주 2회 취항해 광주,

전주를 중심으로 몽골 관광객들을 보내왔다. 이번 협약으로 몽골에는 없는 바다, 스마트팜 등을 체험할 수 있는 고흥 관광 상품은 우리 몽골인들에게 매우 매력적인 관광 상품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영민 고흥군수는 “이번 업무협약으로 해외에 고흥을 경영하는 첫 관광 상품이다. 앞으로도 해외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양한 고흥 관광 상품을 개발하고자 한다”며 “또 중국, 동남아시아 등 해외 관광객 유치로 고흥관광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진용 기자